

부산 뇌병변복지관
오뚜기도서관
도서관탐방

편안하고 가슴 벅찬 감동이 있는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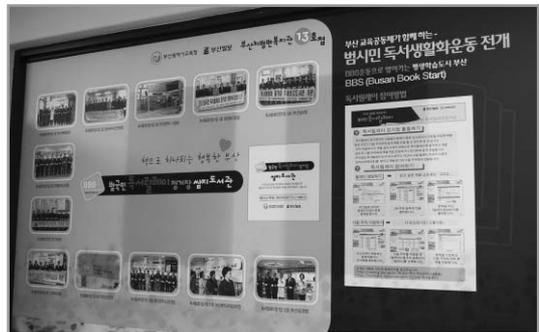
부산 가는 길

계속 감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이른 새벽 서울역에 도착했다. 역 주변은 찬 공기를 마시며 기차를 타기 위해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로 조금 붐비었다. 6시 20분에 출발하는 부산행 KTX에 몸을 싣고 한 3시간쯤 지나니 구포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내려서는 역을 빠져나와 부산뇌병변복지관 내 오뚜기도서관으로 향했다.

부산은 여러 번 가보았어도 구포는 처음 방문한 때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사방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그리고 학교가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신도시 사이에 복지관 건물이 슬며시 보였다. 제대로 찾아왔다는 안도감에 우선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다.

부산뇌병변복지관 오뚜기도서관 지킴이 이성심 선생으로부터 도서관탐방 제의를 받은 건 지난 3월쯤 일이다. 도서관탐방에 대한 공고를 보고 전화를 하셨다면서 꼭 도서관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탐방을 하기로 결정한 후 순번대로 가다보니 이제야 탐방하게 되었다.

복지관 내 도서관 만들기



〈도서관 입구의 게시판〉

도서관은 복지관 1층에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도서관 입구에 여러가지 행사들을 알리는 게시판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게시판을 보고 있노라니 이성심 선생이 우리를 먼저 알아채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는 조그만 규모였지만 군데군데 이 선생의 정성어린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먼저 4층에 가서 이덕순 복지관장께 인사를 드렸다. 이 관장은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고, 복지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이성심 선생〉



〈오뚜기도서관 입구〉

들려주셨다. 복지관은 뇌성마비장애인의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자 1978년도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그 후 2003년에 지금의 금곡동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 이사했고, 그 이듬해 4월 조그

마한 도서관인 ‘오뚜기도서관’을 개설했다.

마침 2005년에는 부산시교육청에서 독서문화정착을 위해 공공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이나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에 썸지도서관을 개설해주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 해 12월에 오뚜기도서관이 BBS범국민독서릴레이정거장 13호점 ‘썸지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썸지도서관은 2006년 9월 현재 23호점까지 만들어졌다.



〈썸지13호점 개관식〉

신도시에 뇌병변복지관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심한 반대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한다’는 굳은 결심아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현재의 좋은 입지에 복지관이 들어서게 됐고 복지관내에 작지만 알찬 오뚜기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복지관 내에 도서관을 개설한 계기는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외출 시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기에 일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소박한 출발이었지만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기존 복지관만 있던 때에 비하면 좋은 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이 관장은 도서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 나가기에 아주 적합한 문화시설’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복지관 내에 도서관이 생기자 보니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복지관을 찾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저절로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오뚜기도서관을 밝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드는데는 관장 이하 직원들과 도서관 지킴이 이성심 선생의 노력이 컸을 것이다.

이성심 선생 본인도 뇌성마비 장애가 있음에도 스스로 데스크에 앉아서 도서관 업무를 하고 이용자를 만나고 한발 더 먼저 다가간 점들이 지역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가 도서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1층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이성심 선생과 계속 얘기를 나누었다.

살아있는 도서관, 내 집 같이 편안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책 대출 모습〉

이성심 선생은 정식으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열정과 의지만큼은 어느 사서 못지 않았다.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이런저런 준비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밤을 지새우는

일도 많았지만 협조받은 8,000권 가량의 장서와 각종 기자재들로 잘 꾸며 2004년 4월 드디어 문을 열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기 시작한 것은 9월부터였는데, 매달 지역주민 신규회원이 30명씩 늘어난다고 한다. 뇌성마비 장애우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일반 지역주민 이용자도 많다보니 지금은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돌아간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모습〉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아이와 함께 손 붙잡고 도서관을 찾은 어머니들로 붐비었다. ‘아저씨 안녕’ 하는 인사를 하면서 스스럼없이 이 선생에게 장난치는 아이들의 해맑고 순수한 모습은 참 흐뭇했다.

이 선생은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좀더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관리자적인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용자 스스로가 도서관의 주인이 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의 도서관이 꾸러졌고,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가정문제, 아이문제 등을 이 선생과 상담할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있는 것 그대로 보여주기"

대부분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소외 대상”, “도움의 대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한다



〈책 읽고 토론하는 모습〉



〈어머니 독서회 활동 모습〉

고 이 선생은 말한다. 그래서 오푸기도서관에서는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에 애썼으며 그 진솔한 모습이 지역사회에 많은 호응을 얻게 된 것 같다.

도서관에 온 한 뇌성마비장애우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 구경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도서관에 온다고 한다.

도서관에서는 장애아들에게 매주 책을 읽어주고 토론하는 프로그램, 연극프로그램, 어머니 독서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한다.

또 지난 9월 22일에는 지역주민과 뇌성마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축제인 ‘제3회 오푸기축제’를 복지관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우리 가족 가훈 만들기’, ‘지역주민 인형극 공연’, ‘가족을 주제로 한 시, 그림 전시’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밤늦게까지 복지



〈오투기 축제 모습〉

관 앞마당에서 축제를 하는데도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지역주민 하나 없이 모두 함께 웃으며 즐기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한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앞으로 오투기도서관은 그 어느 도서관보다 건강한 도서관, 지역주민과 가까운 도서관으로 지역 내에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도 지역주민들이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지역주민의 회원수가 1,000명 정도 되면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자원봉사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성심 선생은 끝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저희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인 서재의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

아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될 수 있으면 집 가까이 있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게 합니다. 틀에 짜인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좋지만, 우리도서관 같이 집 앞을 지나치다가 잠시 들러서 쉬면서 단 몇 페이지라도 읽고 갈 수 있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각 지역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희 오투기도서관 같은 도서관들도 많이 생겨 장애인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질 수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오투기도서관은 작지만 편안하고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도서관으로 기억된다. 오투기도서관은 넘어져도 곧 다시 일어서는 “오투이”처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글 : 심효정, 사진 : 최인경)